

지역 소식통

정읍시, 중동상환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정읍시가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정읍시는 민생불안정 해소, 석유가격 안정화, 기업운송 지원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세밀하게 운영된다. 먼저 민생불안정 해소는 생활 물가 동향상을 상시 점검하고 지방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석유가격 안정화반은 관내 주유소의 가격 흐름과 석유 제품 유통 질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청 누리집과 오피넷(OPINET)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업운송 지원반은 관내 수출입 기업의 물류 상황과 현장의 고충을 점검하고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 등 유가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타격을 받는 운송업종의 경영 여건을 살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전문운영사 23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놀이 문화를 확산하고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 기적의 놀이터를 무대로 '창의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 사업 수행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의놀이터 사업은 총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연간 1800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5개의 상상·기획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꾸려질 예정이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정읍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을 직접 방문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봄 봄 봄' 고창 벚꽃축제 개최

내달 3~5일 고창석정온천지구 일원서...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봄 축제 군민 활력 운동회·딸기 케이크 만들기·콘서트 등... 불거리·즐길거리 '풍성'

고창군이 오는 4월3~5일(3일간) 고창석정온천지구 일원에서 '제4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를 맞는 고창 벚꽃축제는 '봄, 봄, 봄'을 주제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봄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봄봄 군민 활력 운동회', 지역 농업 체험을 접목한 상하농원과 함께하는 '딸기 파티 세(딸기 케이크 만들기 체험)', 봄 감성을 담은 음악 공연 '봄봄봄 콘서트' 등이 마련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체험형 축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축제장 곳곳에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SNS 감성 포토존이 조성되며, 야간에는 벚꽃길을 따라 조명과 경관 연출을 더한 '야간 벚꽃만발 아트로드'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축제 공간을 확장해 벚꽃정원을 중심으로 '봄날 치유마실' 주간 체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잔디 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는 치유정원 캠프

프니,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 팝업로드, 자연과 함께 마음의 여유를 찾는 치유 명상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봄날의 여유와 힐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외에도 인기 가수 박창근, 김희진, 헤이즈, 테이 초청공연이 예정돼 있다.

또한 축제 기간에는 고창 꽃정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벚꽃축제장과 꽃정원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해 방문객들이 벚꽃을 보다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 '맞손'

부안군-원광대, 줄포만 해양 치유·메디컬 웰니스 산업 협력 다짐

부안군과 원광대학교는 지난 16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박성태 원광대 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줄포만 해양 생태자원과 의료 인프라를 연계한 메디컬 치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줄포만 노을빛 지방정원 일원에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해양 치유와 메디컬 산업을 연계한 지역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줄포만의 블루카본 갯벌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 치유 산업을 육성하고 메디컬 웰니스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과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ESG 메디컬 상생협력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해양 치유 및 예방의학 기반 메디컬 프로그램 개발, 줄포만 갯벌 등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프로그램 연구, 기업 ESG 연구 및 메디컬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청년·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365 군민소통광장 게시글 500호 돌파

군민 목소리 담아낸 소통·적극행정 결실... 원스톱 피드백 '호평'

부안군은 군민 소통 통합 플랫폼인 '365 군민소통광장(이하 소통광장)'이 운영 시작 약 7년 만에 게시글 500호를 달성하며 군민과 군정을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소통광장은 분산돼 있던 각종 제안과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원스톱 피드백에 있다. 의견이 접수되면 즉시 소관 부서가 지정되고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답변이 게시되는 전 과정을 군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처리 실태를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통해 행정의 책임감을 높여왔다. 이번 500호 달성은 군민들이 행정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설계자로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소통광장에는 생활 주변의 작은 불편 사항부터 부안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굵직한 제안까지 다양하게 접수됐으며 이는 곧 군의 적극행정 과제로 이어져 군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500호 달성 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지난 2025년 부안동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은 사회 교과 과정인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수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부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소통광장에 직접 제안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아이들의 순수한 사선이 담긴 제안 내용을 보고받은 후 즉시 현장 확인과 조치를 지시했

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는 현수막 정비를 즉각 완료하고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답변을 게시하며 체험형 소통 행정의 본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은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사회와 지역과 교재인 '우리 고장 부안'에 소통광장 링크를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소통광장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를 고향의 행정 시스템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게 됐다.

군은 향후에도 소통광장을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모니터링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장, 23개 읍면동 방문... '2026 시민과의 대화' 성료

생활 밀착형 건의 200여건 접수

정읍시가 지난달 23일 정읍면을 시작으로 이달 16일 철보면까지 총 12일간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성료했다.

이번 순회 방문에는 총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일

상 속 불편 사항을 자유롭게 나눴으며, 그 결과 도로 확포장과 농로 포장, 용배수로 및 소화전 정비 등 생활 밀착형 건의 약 200여건이 접수됐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지시하고 예산 수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면밀한 확인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번 대화에서 수령된 200여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철저한 현장 점검과 세부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처리 계획을 건의자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봄배추 식재현장 방문 등 소통행보

주민 숙원 해결·김치산업 기반 강화 현장 점검 나서

고창군수는 지난 16일 고창읍 남흥동 일원의 용수로 정비 민원현장을 찾아 사업 대상지와 주변 여건을 직접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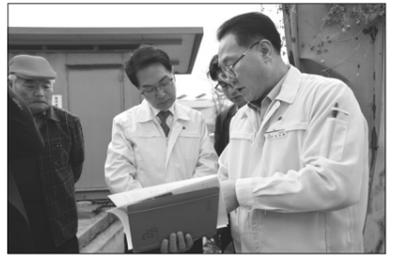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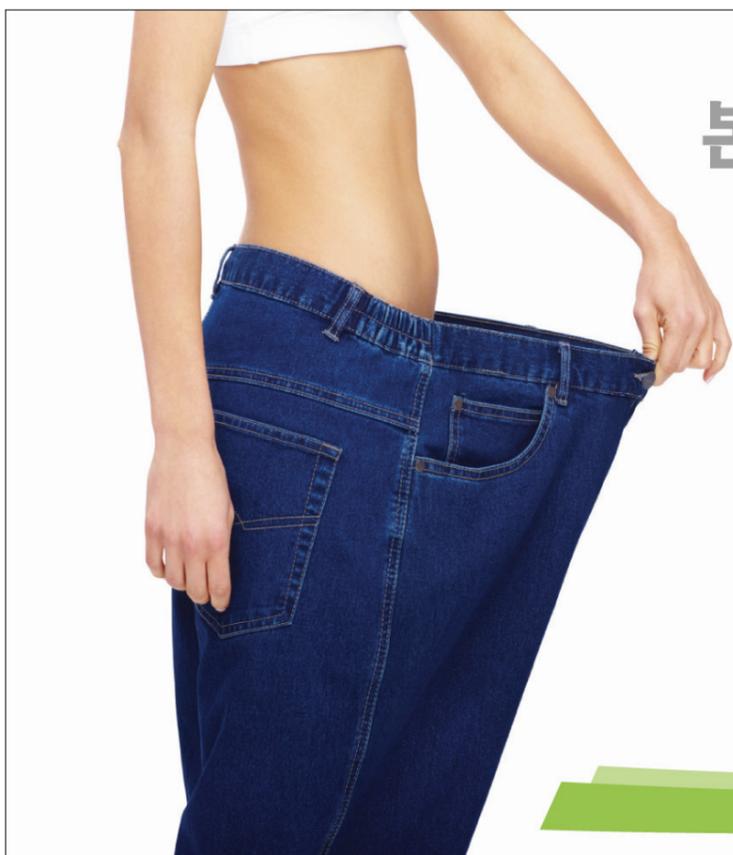
해당 지역은 노동저수지에서 덕산마을로 이어지는 폭 1.5m 규모의 농어촌공사 관리 용수로가 설치된 곳이다.

도로와 접한 약 120m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쓰레기 무단 투기와 오·폐수 유인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했으며, 농어촌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배수로 복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는 대신면 연동리 일원의 배추 재배 현장을 찾아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날 애로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가들은 안정적인 생산 여건 조성과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